

# 통신技術의 革命과 國際커뮤니케이션

秋 光 永

(서울大 新聞學科 副教授)

## 차 례

- |                       |                 |
|-----------------------|-----------------|
| I. 緒 論                | V. 第3世界의 歷史的 跳躍 |
| II. 國際커뮤니케이션의 變貌      | VI. 結 語         |
| III. 國際的 데이터의 흐름(TDF) | 참고문헌            |
| IV. 커뮤니케이션革命의 經濟學     |                 |

## I. 緒 論

지난 30여년간의 電子, 情報, 통신산업분야의 기술 발전은 革命的이라고 불리울 만큼 급속한 것이었다. 특히 C & C, 즉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융합은 인간의 지능과 정보의 생산, 저장, 전달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켜주었고 과거 2萬年 동안의 인류의 기술발전을 합친 것보다 더욱 큰 변화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Williams, 1983). 이 결과 인류는 새로운 환경 또는 生態系(ecology)로 일컬어지는 소위 情報化社會로 진입하고 있다(Masuda, 1981).

커뮤니케이션革命은 전문가들도 따라가기 힘든 빠른 展開速度와 그것이 미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영향의 廣域性으로 인하여 全世界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변모될 未來의 社會를 추측해 보느라 Slack이 지적하듯이 커뮤니케이션 狂亂(craze)에 빠져있는 형편이다(Slack, 1984).

脫工業(Bell), 脫資本主義(Dahrendorf), 脫부르좌(Lichtein), 脫現代(Etzioni), 脫文明(Boulding), 脫이데올로기(Feuer), 脫經濟(Kahn), 脫프로테스탄트(Alstrom), 情報化(Masuda)社會, 또는 第3의 물결(Toffler) 등 닥쳐올 未來社會의 이름은 評者들의 수 만큼이나 무수하고 다양하다(Dizard, 1982, p. 3). 그러나 그것이 무엇으로 불리든 未來社會에서 情報과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은 지대하며 그 영향은 全地球的일 것이란 점에 관해서는 모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Porat, 1978).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는 비단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이미 享有하고 있는 先進諸國들 뿐 아니라 아직도 「제 1의 물결」속에 살고 있는 많은 제 3 세계 또는 後進 低開發國(Less Developed Countries; LDCs)들에게도 밀어닥칠 것이며 그들에게 주는 含意는 크다고 하겠다.

커뮤니케이션革命이 제 3 세계에 주는 含意는 역설적으로 先進國의 그것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LDC들은 先進國과는 다른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現存하는 국제커뮤니케이션의 거대한 量的·質的 不平等과 不均衡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테크놀로지의 발전속도가 빠를수록 이 간극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UNESCO, 1981).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不平等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신국제정보질서」의 수립을 부단히 요구해 오던 제 3 세계는 이제는 더욱 큰 「제 3의 물결」에 휩쓸릴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에 대처할 명백한 해결책마저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추광영, 1986).

通信革命 즉 급속한 통신테크놀로지의 발전은 과연 제 3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들은 어떻게 이에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물론 미래사회를 보는 視角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현재로서는 그렇게 분명한 것만은 아니다.

커뮤니케이션革命과 情報化社會에 대한 기대와 評價는 물론 樂觀과 悲觀의 두 視角으로 갈린다. 그러나 선진국들 뿐 아니라 많은 LDC들에 있어서도 테크노피아(technopia)란 말이 대표하듯이 기술발전이 갖다 줄 理想郷에 대한 기대는 자못 크다. 일반적으로, 발전하는 테크놀로지는 인간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줄 것이며, Toffler가 보듯이 개인의 다양성을 높여주어 궁극적으로는 社會의 民主化도 더욱 촉진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Toffler, 1980). 이뿐 아니라 1차 산업혁명에서 落伍하여 植民的 壓迫의 쓰린 경험을 겪었던 많은 LDC들은 「제 2의 산업혁명」에 동참함으로써 産業社會란 歷史的 段階를 건너뛰어 곧장 先進 「정보화사회」로 도약(leapfrogging)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실정이다(Ishadi, 1985).

커뮤니케이션革命은 과연 이러한 第 3 세계 LDC들의 기대처럼 南北간의 국제커뮤니케이션 구조와 일방통행적 정보유통구조를 개선시켜줄 것이며 그들의 역사적 도약을 가능케 해 줄 것인가?

本稿는 이런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革命에 따라 변모하고 있는 국제커뮤니케이션의 구조를 살펴보고 이것이 제 3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가장 새로운 형태의 국제커뮤니케이션인 「越境데이터흐름(Transborder Data Flow: 이하 TDF)」의 문제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産業의 經濟的 屬性과 제 3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관찰해 보기로 하였다.

## II. 國際커뮤니케이션의 變貌

情報, 通信技術의 革命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엄청난 양적·질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개 다음 네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장 괄목할 변화는 국제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채널의 용량확대와 질적 변화이다. 즉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기존 국제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용량(capacity)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전연 새로운 채널을 탄생시켜 그 어느때보다 양적 증가를 이루었으며 새로운 통신망으로 지구를 거미줄 같이 엮어 즉시적 통신이 가능하게 하여 하나의 村落(global village)으로 바꾸어 놓았다. 즉, 국제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위성통신, 海底 光케이블(optical cables) 등 새로운 채널의 등장과 더불어 기존의 케이블이 同軸케이블(coaxial cable)화 또는 光케이블화함에 따라 놀라운 용량증가가 또한 이루어졌다. 예컨대 1964년 240 음성채널에 불과하던 Early Bird 통신위성에서 시작하여 이를 대체한 현재의 Intelsat V-A호 위성에 이르러서는 위성 1개의 용량이 약 14,000회선으로 증가하였고 14개의 정지위성 시스템으로 약 10만 회선을 갖고 있고, 미국과 영국 사이에 1956년 개통된 대서양횡단 해저케이블(TAT-1)은 전화 36회선이 고작이던 것이 1985년 TAT-7의 개통으로 4,200회선으로 확장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과 일본간의 태평양횡단 케이블의 경우 1964년의 TPC-1의 용량이 138회선에서 10년후인 1975년의 TPC-2는 845회선 1988년 준공예정인 TPC-3은 光케이블을 이용하여 용량이 8,000회선으로 계획되어 있다. 1981년 개통된 한일간의 해저케이블은 그 용량이 2,700 전화회선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국제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網의 傳送方式이 디지털化 되어 傳送되는 信號가 점차 디지털로 바뀌고 있어 통신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고 국제종합서비스망(ISDN)의 실현을 可能하게 해 주고 있다. 즉 텔렉스, TV, 전화, 전신, 데이터 등 모든 서비스를 디지털망으로 묶는 국제 ISDN이 1988년에는 적어도 英, 美, 日 3國間에 실현될 예정이며 점차 지구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게 될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D. Schiller, 1985).

高品位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음성, 데이터, 비디오신호의 구분을 없애주었을 뿐 아니라 정보를 수량화할 수 있게 하여 새로운 '판매단위'를 만들어 줌으로써 정보의 상품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데이터 뱅크 또는 데이터 베이스 등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촉진하고 있기도 하다.

셋째, 확대된 채널용량과 이에 따른 통신서비스의 가격하락은 국제통신량(traffic)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주었다. 예컨대 1950년 美國의 경우 국제통화가 약 100萬呼(calls)에 불과하던 것이 1980년에는 2億呼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증가비율은 이와 비슷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5년의 국제전화는 착발신을 합쳐 286만 9천여呼에서 1985년에는 10배가 증가한 2,866만 4천여呼로 불어났으며 일본은 1975년 1,022만여呼에서 1985년 9,563萬呼로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제커뮤니케이션은 기술발달의 덕택으로 전통적이던 소량 엘리트서비스에서 이제는 대량 대중서비스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괄목할 변화는 국제커뮤니케이션의 내용상의 변화(shift)이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전통적으로 국가간 커뮤니케이션의 大宗을 이루고 있던 메스 커뮤니케이션, 즉 뉴스와 오락 예컨대, TV, 영화, 도서, 잡지 등 오락프로그램 대신에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그 主宗으로 등장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變換은 前述한 디지털 데이터의 가속되는 商品化 및 後述할 超國家企業(transnational corporation: 以後 TNC)의 TDF의 결과이며 새로운 次元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아름든 이러한 國際커뮤니케이션의 量的·質的 변모는 인류의 역사상 그 선례가 없는 현격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LDC들과 先進國들간의 커뮤니케이션상의 불평등과 불균형은 줄어들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樂觀論者들의 대답은 물론 긍정적이다. 그들의 주장은 채널 容量증가와 이에 따른 서비스 가격하락은 결과적으로 국제간의 통신량을 늘리고 先後進國間의 정보의 流通과 交流를 촉진시킬 것이며, 아울러 衛星通信은 國境과 時間의 제약을 초월케 해 줌으로써 傳統的 點對點(point-to-point) 통신에서 多者間(multi-point) 同報的 通信을 가능하게 해 주고, 종래에는 先進國의 主要 도시를 경유하여 이루어지던 국제커뮤니케이션이 當事國들간의 直接通信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先後進國間 또는 第3世界國家들끼리의 交信이 용이하게 되어 국가간의 相互依存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一方通行的 구조가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Pool, 1977).

그러나 批判論者들은 이러한 外形의 長點에도 불구하고 現存 국제커뮤니케이션의 一方的性格과 先後進國間의 不平等의 패턴은 그렇게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 주장이다. 그들은 既存의 간극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H. Schiller, 1981).

커뮤니케이션革命이 국제적 통신서비스를 향상시키고 大量化, 大衆化시켰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예컨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980년의 국제전화통화료는 1950년의 통화료보다 싸며, 1965년 통신위성의 專用回線 임대료가 回線當年間 美貨 \$ 22,000 이던 것이 現在는 약 \$ 800로 하락하였다. 또한 Intelsat이 14개의 정지궤도위성을 이용하여 168개국의 819여개 지구국에 도달할 수 있어 同報性이 거의 완벽하다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곧 國際커뮤니케이션의 不平等과 一方通行的 方式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보는 낙관론자들의 견해는 극히 안일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先後進國을 연결하는 物理的 施設이 存在하게 되었고, 기술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價格의 하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들간에 평등하고 공평하며, 雙方通行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개연성과 必然性은 별개의 것이며, 누가 이 시설을 얼마나 또 어떤 目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등에 관해 소상하게 분석해보지 않고서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일은 성급한 假定(assumption)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뚜렷이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발전하는 기술이 결코 현재의 南北間의 통신자원의 격차를 줄여주고 있지 않다는 實證的인 사실이다.

1985년 현재 LDC들의 인구는 세계의 75%인 약 36억이나 되지만 이들 국가들의 전화기 대수는 겨우 22%에 불과하여 심한 불균형은 통신혁명에도 불구하고 시정될 기미가 없는 것이다.

다음 표는 주요 선진국과 후진국 전체의 전화기 보유 현황이다.

<표 1> 세계의 전화기 분포

국명	전화기 수 (1,000대)	점유율(%)	국명	전화기 수 (1,000대)	점유율(%)
미국	181,893	33.9	이태리	21,680	4.0
일본	61,208	11.4	캐나다	16,802	3.1
서독	31,370	5.8	스페인	12,820	2.4
프랑스	29,374	5.5	호주	8,241	1.5
영국	29,061	5.4	기타	117,497	22.0
소련	26,667	5.0	계	536,613	100.0

자료: ITU, *The Missing Link*

구체적인 예로서 1982년 현재 아프리카대륙 전체의 전화기수는 681만대에 불과하여 일본의 동경시의 전화수 868만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세계인구의 3/4이 人口 100人當 전화기 보유대수 10대 미만이며 인구의 50%는 100인당 전화가 1대 미만인 나라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앞의 표에서 보듯이 先進各國의 숫자와 비교해 볼 때 격차는 엄청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는 좀 다른 예이지만 통신기술의 발달이 南北의 격차를 오히려 넓혀주고 있음을 보이는 분야는 위성통신 분야이다. Pelton의 연구에 의하면 앞으로의 국제커뮤니케이션의 주종을 이루게 될 위성채널을 사용한 국가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결코 先後進國간의 시설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LDC들을 모두 합친 위성채널수는 1979년 현재 약 13,000회선으로 선진국과의 차이가 약 8,000회선인데 반하여 1993년에 가서는 오히려 약 76,000회선으로 그 격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낙관론자들의 단순한 예상과는 달리 발전하는 기술이 오히려 남북간의 격차를 넓혀주고 있음은 여러 분야에서 관찰되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革命이 가져온 새로운 국제커뮤니케이션 형태인 TDF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2> 위성통신시설 증가 예상

	채널 수		총증가율(%)	연간증가율(%)
	1979년 현재	1993년 예상		
개발도상국	13,174회선	86,885	559.5	14.42
선진국	21,167	162,558	668	15.68
총계	34,341	249,443	625.5	15.21

자료: Pelton, 1981, p. 307.

### Ⅲ. 國際的 데이타의 흐름(TDF)

TDF는 “국경을 가로질러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데이타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Dordick, 1984, p. 210). 이것은 直接衛星放送(DBS), 원격탐지(remote sensing)와 더불어 通信衛星 및 컴퓨터의 발달로 가능해진 가장 새로운, 그리고 현재 가장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 국제커뮤니케이션이다. TDF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디지털화된 데이타를 국경을 초월하여 同時(real-time)에 傳送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情報의 검색(retrieval), 補完(updating), 계산(computing), 거래(transaction) 등 다양한 형태의 操作이 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결과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데이타의 원격처리(remote processing) 또는 分散處理(distributed processing), 즉 한 곳의 대형 중앙컴퓨터에 세계 도처의 터미널이 연결되어 정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바로 C & C의 표본이자 진수인 것이다.

TDF를 통하여 국가간에 유통되는 정보와 데이타의 종류와 양에 관한 정확한 통계치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어떤 종류의 데이타도 디지털화되어 전송될 수 있고, 현재로는 정보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데이타 뱅크를 위시하여 주로 기업의 경영관리정보 및 거래정보, 은행의 금융정보, 旅行豫約, 원격컴퓨터처리 등 다양한 企業의 목적에 쓰이고 있다. 특히 TDF는 TNC의 국제적 活動에는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되어 있고, 이들이 전체의 50% 이상을 쓰고 있다는 것으로서 최신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企業의 用途에 活用되어지는가를 시사해 주며 국제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TDF의 論議를 우선 데이타베이스 등 정보처리産業에 한정시킬 경우, 무엇보다 먼저 지적되는 것은 이들 시설장비가 一部 先進國에 集中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신의 대형 중앙 컴퓨터와 이를 연결하는 통신장비는 방대한 투자가 필요한 資本集約的 시설로서 이를 LDC가 쉽사리 갖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은 주로 美國을 필두로 한 선진국의 데이타 뱅크나 이를 企業活動에 적극 活用코자하는 TNC의 專有物이 되어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결과로 정보와 데이타는 주로 이들 선진국의 中央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고 加工處理된 정보는 LDCs로 一方的으로 흐르는 것이다(Hamelink, 1984, p. 208). 말하자면 TDF는 기존의 一方通行의 南北間 커뮤니케이션흐름을 더욱 一方的인 것으로 惡化시켜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1970年代末의 통계에 의하면 美國은 전 세계 데이타 베이스의 49%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저장된 정보는 세계 전체의 63%에 이르며, 年間 수입은 이미 10億弗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Lockheed와 SDC의 兩大 데이타 베이스가 미국시장의 60%, 유럽시

장의 75%를 석권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Dizard, 1982, p. 156). 컴퓨터화된 텔렉스市場은 1985年 현재 年間 매출액이 140億弗인 超大型산업으로 자랐고 美國의 RCA Globecom, ITT Worldcom 및 Western Union社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실정이다(Dizard, 1982, p. 156).

다음 表는 先進國의 이러한 情報産業獨占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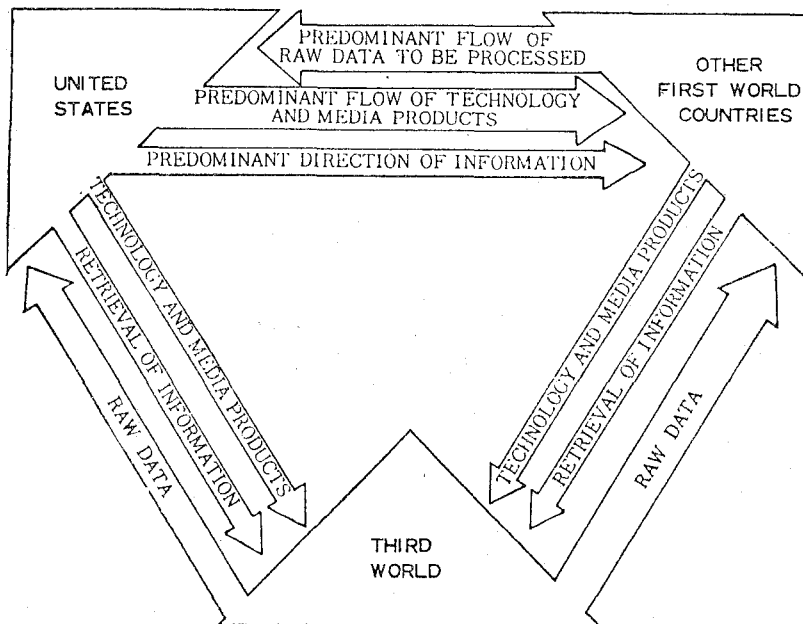
〈表 3〉 1979年의 데이터 베이스 分析

지 역	베 이 스 수	보유 기록 건수	%
미 국	259	93,500,000	63
비미국(캐나다, 일본, 유럽)	269	54,500,000	37
계	528	148,000,000	100

출전 : H. Schiller, 1981, p. 36.

이러한 集中의 결과는 南北間 국제커뮤니케이션의 완전한 一方通行의 흐름이다. 이는 Schiller가 지적하듯이 “정보상품과 용역은 미국에서 흘러 나가고 있고, 데이터의 물결은 미국으로 흘러들어와 加工處理되어 美國製品으로 변하여 國際정보상품市場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보의 原資材는 LDC에서 先進國으로 流入되고 이를 加工處理한 完製品은 LDC로 다시 역수출 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데이터 수입국이며 정보의 輸出國”이라 불리고 있는 것이다(H. Schiller, 1981, p. 5).

〈그림 1〉 世界情報流通의 現況



출전 : H. Schiller, 1981, p. 6.

이런 情報流通의 一方性은 많은 비판논자들이 입을 모으듯이 商品化의 加速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고 새로운 情報從屬의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앞의 그림은 이러한 一方 通行의 정보유통현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처리 施設이 이와같이 선진국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Rada의 지적처럼 선진국들이 어떤 정보를 유보하고 어떤 정보를 판매할 것인가 하는 決定權을 갖게 해 주는 것이며, 정보수입국은 수출국의 결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Rada, 1981). 따라서 LDC들은 증가하는 정보수요에 따라 막대한 처리업무를 先進國에 의존하게 되며, 점점 정보중속적 지위로 굳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런 현상은 비록 그들 뿐만이 아니라 美國을 제외한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들의 경우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1978년 한해 동안 美國으로부터 수입한 전산처리 업무량은 약 4億弗에 달하였으며, 이것은 1985년엔 약 15億弗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도 하여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Pipe, 1984, p. 197).

정보의 중속은 전산인력의 유출(brain drain)과 國內 전산처리산업의 위축을 초래하여 고용기회를 앗아가는 등 부수적인 문제를 또한 초래한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1977년 약 7,500名이 일자리를 이런 이유로 잃게 되었으며, 1985년까지는 약 23,000名의 일자리가 일실될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Pipe, 1984, p. 197). 대부분의 LDC들에게는 人力流出은 더욱 심각하여 컴퓨터산업의 성장자체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TDF의 또 하나의 문제는 私生活(privacy)침해의 문제이다. 데이터 베이스들은 많은 量의 個人的 情報, 즉 많은 個人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當事者 個人의 지식이나 事前同意 없이 이들 정보를 수집 판매하고 있으며, 이런 點에서 私生活 침해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한 어떤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면에서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야기한다(Dordick, 1984). 즉 데이터 베이스가 외국에 위치한다는 것은 傳統的 統制方法, 즉 國內法에 의한 감시, 규제가 불가능함을 의미하며 더우기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순간적으로 외국에 유출되고 있으므로 이를 모니터링할 기술적 方法도 현재로는 애매한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베이스들의 전횡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自國民의 私生活を 보호하지 못하는 國家는 國家가 아니다'라는 認識과 더불어 私生活의 보호를 위하여 國際적으로 TDF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을 필두로 많은 나라에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어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와 비슷한 문제는 情報의 主權問題이다. 이는 주로 위성을 통한 원격탐지(remote sensing)와 관련되는 것이다. 현재 자원탐사, 海洋觀測, 기상관측 등 수 많은 탐사위성들이



지구궤도를 선회하며 時空을 초월, 각국에 관한 많은 정보를 원격탐지하고 있다. 여기서 수집되는 정보는 아무런 제한없이 수집국의 財産이 되고 있고 많은 부분이 TDF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이럴 때 탐사국은 피탐사국의 동의 없이 이를 수집함으로써 그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주장과 더불어 또 그 정보는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새로운 國際法的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H. Schiller, 1981, p. 117).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탐지능력을 갖고 있는 몇 개 선진국들의 '정보의 자유'를 앞세운 묵살정책에 의하여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5년 4월 개최된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각료이사회에서는 소위 「TDF선언」을 채택하고 국제간에 자유로운 데이터의 유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바, 이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국제커뮤니케이션 형태로 등장하여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TDF는 南北間의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不均衡을 시정하여 주리라틴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많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기존의 간극을 넓혀주는 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현존 국제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경감시켜줄 것이란 낙관론자들의 평가는 국제커뮤니케이션의 구조와 현황에 관한 깊은 分析이 따르지 못한 피상적인 形式論理라고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속성에 관한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최신 테크놀로지의 경제적 속성을 파악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믿어진다.

#### IV. 커뮤니케이션 革命의 經濟學

樂觀論者들은 커뮤니케이션 革命이 南北間의 갭을 줄이고 제 3 세계의 도약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 주장한다. 그들은 발전하는 기술이 저렴하고 신뢰도가 높은, 그리고 유지, 보수에 고도의 기술과 人力이 필요하지 않은 통신시스템을 제공해 줌으로써 기술이 부족한 LDC들이 이를 적극 活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Pool, 1977).

Pool은 이의 代表的이다. 그의 전형적인 낙관론은 다음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장거리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요금의 하락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패킷교환기술을 이용한 국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網은 세계 어느곳에서나 어떤 데이터 베이스나 100單語當 5센트 미만의 비용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이고, 적절한 정보가 LDC의 大學 또는 企劃部署의 연구자들이……全世界 어느 곳에 있는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어떤 事實的 情報도 자기들 국내 전화사용료보다 비싸지 않은 값으로 검색,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명백한 사실은 國際通信은 LDC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미비한 정보시설들을 최상의 것으로 도약, 개선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더욱 낙후하여 낙오하게 될 것이다”(Pool, 1977, pp. 104-105).

Pool의 이러한 전망은 전형적인 擴散理論(diffusion theory)의 시각을 그대로 담고있는 것이

다. 확산이론은 先進國의 기술발전, 즉 改革(innovation)은 LDC들로 흘러내려(trickle-down) 결과적으로 모두가 改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몇 가지의 가정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기술은 自然發生的 또는 自律的(autonomous)인 것이고 價值中立的(value neutral)인 것이며 中心的(central)인 것으로서, 社會의 餘他部問의 發展을 야기하는 原因(cause)이며 그것은 後進國으로 저절로 흘러내리거나 移轉(transfer)된다는 가정이다.

테크놀로지의 自律性, 가치중립성이란 한마디로 Slack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술은 토머스 에디슨과 같은 개인들의 노력에 의하여 발명되는 것이고, 따라서 歷史的 우연이며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자체로는 특별한 가치를 內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中心性이란 발명된 기술은 그것이 社會의 變動을 야기하고 그 直接的 動因이 되며, 人類社會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Slack, 1984, p. 80).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런 시각은 기술의 보편적 영향을 가정하는 단순한 技術決定論이며 데카르트식의 直線函數的 因果論일 뿐 아니라 기술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들은 오늘의 테크놀로지는 결코 에디슨의 個人的 天才에 의하여 自生的으로 개발되는 歷史的 우연이 아니며, 그것은 의도적으로 개발되는 것이고, 따라서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아니며, 모든 社會에서 一律인 社會變動과 發展을 이루어 주는 보편적 원인 또한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Slack, 1984, p. 99).

H. Schiller는 이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테크놀로지는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견되는 것”이고 그것은 처음부터 社會全體의 政治·經濟的 구조를 含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H. Schiller, 1981). 社會構造를 함축한다는 것은 기술이 발명되고 개발되는 것은 社會의 정치·경제·문화적 전체 맥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기술은 구조의 產物이란 것이다. 따라서 기술은 自生的이 아닌 구조의 결과이며 中心性을 갖고 社會의 變動을 일으키는 動因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론자들은 오늘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含意를 분석하는 데는 무엇보다 기술이 追求, 開發되어지는 사회구조와 그 맥락을 파악하고 시장경제의 원칙, 즉 경제적 맥락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들은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윤추구의 수단이자 그 자체가 상품으로 개발된 것이며 거대한 새 시장을 마련하고 정보를 상품으로 판매코자 하는 TNC의 경제적 목적에 따라 개발되었다고 보는 것이다(D. Schiller, 1985).

이미 年間 140億弗 이상이 된 텔렉스시장은 전술한 바 있거니와 1983년의 世界通信投資는 약 590億弗에 달하였다. 이는 1988년까지는 年間 약 880億弗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電話의 경우만 例示하자면 LDC들이 1980년 現在 美國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年間 500億弗을 向後 30年間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Dizard, 1982, p. 87). 따라서 Dizard는 情報通信産業이야말로 “우리 時代의 最高의 産業(premier industry)”이라고 부

르고 있다(Dizard, 1982, p. 88).

수 백억불이나 되는 자본집약적 시설투자와 방대한 연구개발(R & D) 비용이 요구되는 오늘의 테크놀로지는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소수의 TNC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고, 이 사실을 감안할 때 커뮤니케이션革命이 역사적 우연이 아닌 경제적 목적에 입각한 先進國의 체계적 기도에 의한 것이란 비판론자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Schiller父子는 “세계 디지털망은 새 市場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장비회사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태어났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며(D. Schiller, 1985, p. 105),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2次大戰 이후부터 “獨占資本主義의 利害와 표준에 의하여 잉태되고, 개발되고, 추진되었다”고 보는 것이다(H. Schiller, 1976).

批判論者들은 이뿐 아니라,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TNC의 存在와 活動을 가능하게 해 주는 그들의 中樞神經系이며 그들의 生産下部構造를 再編하여 LDC들의 노동집약적 比較優位마저 앗아가는 戰略의 수단으로 파악한다. 말하자면 또다른 경제적 목적을 위해 개발되었다는 視角이다(Rada, 1981). 現在 거의 모든 TNC들은 컴퓨터와 컴퓨터간의 直接커뮤니케이션시스템을 갖고 디지털망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즉시적이고 끊임없는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최첨단 통신망이 없이는 그들의 國際的 企業活動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H. Schiller, 1985). 미국의 Bank of America는 3개의 정지위성으로 전세계에 연결되는 통신망으로 샌프란시스코 本社와 4大陸의 支社를 연결하여 음성, 데이터, 진신 및 相互交渉的 컴퓨터 서비스를 교환하고 있고, Citibank는 Globecom網을 통하여 60개국의 海外支社와 每日 30萬件 이상의 정보교환을 행하고 있다(Dizard, p. 166).

그 외에 1974년 이래 26個國의 700個 이상의 은행이 공동창설, 이용하고 있는 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는 매일 15萬件 이상의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고, 1977年 창설되어 유럽의 유로본드시장 정보를 교환해 주고 있는 Eurex와 세계의 모든 항공사들이 공동이용하고 있는 예약시스템 등 TDF網은 TNC의 活動에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어 있다(Martelanc, 1985). 따라서 H. Schiller는 첨단 커뮤니케이션網이 바로 “TNC의 存在를 可能케 해 주는 神經系”라고 부르고 있고, TNC들은 이를 통하여 그들의 海外支社 또는 工場들과 재무관리, 마케팅, 流通, 注文處理, 연구개발 및 行政業務 등 企業活動의 모든 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H. Schiller, 1985, p. 5).

이러한 첨단 通信網은 이뿐 아니라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TNC의 海外進出을 실현시켜 주고 그들의 生産效率性을 크게 높여주어 소위 超國家化(transnationalization)를 이루어 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H. Schiller, 1985). 前述한 컴퓨터 통신망이 없이는 국제적 은행이나 항공사 및 수 많은 TNC들의 企業活動이 불가능할 것은 자명하다 하겠다.

TDF를 통한 TNC의 또다른 ‘超國家化’ 戰略은 비판론자들이 자주 지적하는 소위 ‘焦點 生産(focused production)’이다. 즉 한 工場에서 조립생산의 모든 공정을 다 갖추는 대신

LDC 각국에 분산된 공장에서 한 부품 또는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다른 곳의 工場에서 조립하는 生産方式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고, TNC의 原價질감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H. Schiller, 1985, p. 10).

TDF에 의하여 이런 生産方式이 가능함에 따라 TNC는 Schiller의 지적과 같이 원가질감과 더불어 LDC들끼리의 노동시장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게 되어, 국제적으로 노동임금을 하락시키고 LDC들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어 결국 LDC의 主權을 침해하는 결과까지 빚고 있다는 것이다. ‘초점생산’方式에서는 결정적 노우하우(know-how)나 사양(specifications) 등은 海外 TNC本社の 中央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TNC는 언제나 이들 결정적 정보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장을 철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H. Schiller, 1985). Schiller는 이를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하고 있다.

“한 개 部品 또는 製品만을 生産하는 공장이 있는 나라는 그 제품생산공정을 완전히 습득하였다고 자부할 수 없다. 그들은 단순한 一部 工程이 있는 곳일 뿐이고 이것은 언제라도 외부의 결정자에 의해 옮겨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가 만약 그 工場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치자.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복합적 生産工程의 겨우 한 部分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H. Schiller, 1985, p. 11).

이와 비슷하게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은 先進國 TNC들의 두뇌집약적 하이테크산업으로의 집중을 가능하게 해주고 동시에 그들의 생산하부구조의 재구성을 통하여 국제비교우위를 유지하게 해 줄 뿐더러 傳統的으로 LDC들의 이점이 되어 있던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교우위마저 앗아가는 것으로 또한 평가되고 있다. 즉 Rada에 의하면 정보기술은 바로 TNC의 生産下部構造이며, 그들의 우수한 기술은 事務自動化(OA) 및 工場自動化(FA) 등을 통하여 원가질감을 가능하게 해 주고, 또한 傳統的으로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하이테크 산업에 더욱 집중케 해 줄 뿐 아니라, LDC들의 노동집약적 우위의 이점을 점차 잠식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Samuelson이 비유한 바 “뚱보는 낚시를, 말라깽이는 사냥을, 머리 좋은 사람은 약을 만드는” 國際分業시대에서 이제는 “뚱보가 낚시도, 사냥도, 약 만드는 일도 모두 독점하게 되는” 시대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이다(Rada, p. 48). 前述한 초점생산 등이 이를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짐작되는 일이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革命으로 크게 확장된 국제커뮤니케이션 채널은 先進國間的 공평한 정보의 교류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TDF의 경우와 같이 先進國 TNC의 本支社間 또는 상호간의 정보교환이나 LDC로부터 수입, 가공처리된 정보를 LDC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주로 使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판론자들의 주장이 지나친 과장만은 아니며 최첨단 테크놀로지는 결코 개인에 의해 우연히 발명되는 가치중립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先進國 TNC의 ‘超國家化’의 수단이자 目標이며, 바로 資本主義 世界市場의 경제원리에 의하여 탄생되고 추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특성이자 동시에 20세기 말의 자본주의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고, Schiller는 이런 뜻에서 커뮤니케이션革命은 자본주의를 초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더욱 強化시켜주고 擴大再生産이 가능하게 해 주는, TNC의 이데올로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H. Schiller, 1985).

최첨단 테크놀로지의 경제적 含意와 그것이 개발되는 方式과 목적 등을 고찰해 보자면 이러한 비판론자들의 논리가 더욱 설득적임을 알려준다고 하겠다.

## V. 第3世界의 歷史的 跳躍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에서 第3世界 LDC들이 技術的 自立을 성취하고 이를 통하여 先進國들과 同列에 끼일 수 있는 歷史的 도약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Rogers의 대답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그에 의하면 LDC들은 점차 하드웨어의 제작에 선진국들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컴퓨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LDC들의 고질인 관료주의의 병폐를 최소화하여 社會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現代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활용하여 國內, 國際間 情報의 交換이 가능하여 기술습득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Ishadi, 1985, p. 139).

그의 낙관론은 Pool의 그것처럼 滴下理論(trickle-down theory)에 입각한 것으로, 기술은 LDC들에 저절로 또는 어떻게든(somewhat) 흘러내릴 것이며 이 덕택으로 LDC들은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 視角이다. 이것은 정보의 공급만 늘리게 되면 LDC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 觀點이지만 구체적으로 先進國의 기술정보가 後進國으로 어떻게 흘러내릴 것인가에 관한 설명은 결여될 뿐 아니라 그 方法에 관하여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확산시각은 제 1차 산업혁명 이후 앞서 갔던 工業先進國의 기술이 LDC들에게 결코 흘러내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식민에속만을 결과하였다는 歷史的 先例를 설명할 방법이 없으며, 이런 歷史的 事實에도 불구하고 제 2의 산업혁명에서는 기술과 정보가 흘러내릴 것으로 가정하는 것으로서 너무나 안일한 설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LDC가 先進國을 따라잡는 일(catching-up)은 自體의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하든가 아니면 기술이전을 통한 土着化로 기술자립을 달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 代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모두는 現在의 세계경제적 여건과 구조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LDC의 독자적 연구개발(R & D)은 무엇보다 먼저 지속적이고 방대한 연구개발투자와 이를 담당할 수 있는 高級 科學技術 人力의 存在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LDC에겐 자본과 人力이 모두 결여되고 있는 형편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LDC들이 傳統적으로 누려오던 國際分業上의 노동집약우위마저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잠식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컨대 10억불이나 소요되는 전자교환기와 같은 첨단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투자는 LDC들에겐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랜 식민질곡에서 벗어난지 얼마 되지 않는 대부분의 LDC는 교통, 교육, 통신시설 등 제반 社會 下部構造가 아직도 극히 劣惡한 상태이며, 自體의 교육제도 向上을 통하여 최고급기술인력을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술의 自體開發이 불가능한 입장에서는 기술이전을 통한 土着化의 方案이 표면적으로는 유일한 代案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것마저 확산이론가들이 보듯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며, 역사적 도약을 위한 方案으로서의 커녕 現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는 方案으로서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Reddi, 1985).

세계 각국의 기술이전패턴을 조사한 최근의 한 유네스코보고서는 기술의 '移轉(transfer)'은 존재하지 않고 상품으로서의 技術의 '賣買(transaction)'만이 存在하며 그것도 단순하고 落後된 기술의 거래만이 행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Hancock, 1984, p. 26). 또한 Rada는 선진국 TNC들은 그들의 시장확대 또는 시장개척이란 상업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이전에 지극히 인색할 뿐더러 대부분의 경우 일부의 이전이나마 不公平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一方의인 것이며 오히려 기술중속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Rada, 1981, p. 51). 또한 Reddi에 의하면 이러한 기술이전의 관행은 바로 역사적인 植民主義의 패턴이며 통신기술의 경우도 그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Reddi, 1985, p. 78).

LDC들의 技術土着化에 어려움을 더해주는 것은 LDC들에겐 적정수준의 土臺, 즉 기존의 기술마저 결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Rada의 지적처럼 전자통신기술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입각한 것으로서 기술자체가 어렵고 傳統的인 기계적(mechanical) 또는 하드웨어의 기술에 비하여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것이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LDC의 적절한 테크놀로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의 受容이 어려운 것이다(Rada, 1981, p. 51). 이런 점에서 보자면 거의 대부분의 LDC는 오늘의 첨단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수용하기 위한 기초가 우선 부실한 입장이라고 하겠다. 첨단기술은 대부분 단순한 기계나 하드웨어가 아닌 특정의 工程 또는 프로세스 등 노우하우이거나 아니면 복합적 시스템 등이며,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수용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능력 등의 기술적 토대가 필요할 뿐더러 고도의 훈련을 거친 고급인력이 또한 요구되는 것이다. 기술이전을 위한 이러한 전제조건들은 오랜 경험과 기술의 점진적 축적을 통하여만 구축되는 것이라고 볼 때 LDC들의 대부분은 이런 면에서도 기술을 土着化할 수 있는 최소의 수준에도 미달하고 있다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LDC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볼 경우 최첨단 기술의 自體開發은 물론이고 기술이전을 통한 土着化의 方案도 결코 LDC의 도약의 꿈을 實現시켜줄 적절한 代案이라고

는 할 수 없는 形便이다. 말하자면 확산이론적 낙관론자들과 많은 LDC의 정책입안자들이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혁명에 대한 기대는 실제로는 그 기대의 근거가 박약하며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迷忘에 빠지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革命은 역설적으로는 LDC에게 더욱 큰 딜레마를 안겨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LDC의 도약의 꿈이 어느 때보다 크고 절실한 反面, 테크놀로지의 발달속도는 더욱 加速되고 있고 그만큼 先進國과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VI. 結 語

本稿는 커뮤니케이션 革命에 따른 국제커뮤니케이션의 변화와 이것이 함축하는 LDC에의 영향을 TDF의 문제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經濟的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分析해 보고자 하였다. 前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난 20여년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진정 혁명적이었고 이에 따른 국제커뮤니케이션의 변모 또한 지대하였다. 새로운 채널의 등장과 既存 채널의 기하급수적 용량확대로 국제간의 커뮤니케이션은 크나큰 양적·질적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TDF의 경우에서 뚜렷이 관찰되듯이 채널의 증가만으로는 南北 또는 先後進國間의 기존의 不平等과 一方通行의 커뮤니케이션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진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종래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위주로 하던 국제적 정보의 흐름이 새로운 데이터의 흐름으로 그 主宗이 바뀌면서 새로운 不平等과 정보의 從屬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최첨단의 기술이 발명되고 活用되는 경제적 맥락을 분석해 볼 때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다.

최첨단의 정보통신기술은 결코 個人에 의하여 우연히 발명되는 自律的이고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새로운 社會發展을 이룩하게 해주는 보편적 원인이나 社會變動의 動因이 아니라 社會全體의 구조 특히 경제적 구조가 낳는 산물이며, 직접적으로는 TNC의 利潤擴大를 위한 市場경제적 목적에 의하여 개발되고 판매되는 상품이자 그들의 '超國家化'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 革命은 그 잠재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南北間의 갭을 메꾸어 주고 불평등을 해소시켜 주며 資本主義를 초월해 줄 것이란 낙관론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오히려 문제를 惡化시키고 있고 자본주의를 더욱 강화 또는 擴大再生産시켜 주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市場經濟의 원리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Schiller의 지적대로 2世紀나 된 "오래된 드라마(old drama)"가 再演되고 있다고 하겠다. 제 1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심화된 先後進國間의 歷史發展의 차이는 이제 제 2의 革命에서 그대로 답습되고 있고 테크놀로지의 발전속도가 빠른 만큼 그 격차는 확

대 심화될 展望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LDC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마저 그렇게 넓지는 않다. 기술개발 또는 土着化를 통하여 先進國을 ‘따라잡는’ 일도 現實的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神話(myth)’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별다른 突破口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딜레마는 제 2의 산업혁명에서 또다시 낙오하여 쓰린 과거의 植民的 역사를 되풀이 할 수 없는 반면 이를 타개할 묘안 또한 없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본질과 속성에 관한 정확한 판단과 적절한 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이 LDC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들은 先進國과의 부단하고 집요한 교섭과 구매력을 이용한 집단압력을 이용하여 진정한 기술이전과 協力を 모색하고 기술자립을 위한 人力의 양성과 기초기술 축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기술의 涵意는 文化와 나라에 따라 다른 것이다. 따라서 LDC들은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기술의 선택과 수용을 위한 정확한 기술의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南南協力を 통한 LDC들끼리의 경험의 交換과 集團的 技術自立을 위한 方案의 모색에도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술발전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있는 국가간의 相互依存性에 관한 선진국측의 깊은 인식과 진정한 協力の 자세일 것이다. 모든 나라에서 국내적으로는 이미 사라져 버린 自由放任的(laissez-faire) 經濟原則이 國際社會에서는 아직도 固守되어야 한다는 선진국의 논리는 時代錯誤의인 것이라 하겠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물론 人性의 순화를 결과하지 않으며 TNC들이 더욱 利他的이고 協力的이 되리란 기대는 안일한 것일테지만 國內的·國際的으로 각기 다른 二重的 經濟原則(double standard)을 합리화하는 ‘情報의 自由流通原則(free flow principle)’은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革命이 갖고 올 ‘脫工業社會’가 ‘脫人間性(post-humanity)’의 社會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人類共榮의 필요를 인식하는 선진국의 의식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며, 이는 時代的 當爲라고 할 것이다. 진정한 南北의 協력에 바탕하여 인류의 공통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제 2의 產業革命」前夜에 있는 人類의 當面 課題인 것이다.

## 참 고 문 헌

- Bell, Daniel 1976,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Cherry, Collin 1979, "Thoughts on the Relevance of the 'Communication Explosion' to the Future World Order," in Prosser M. (ed.), *Inter Communication Among Nations and*



- Peoples*, New York, Harper & Row, pp. 576-586.
- Choo, Kwang Yung and Kang, Hyeon Dew 1987, "Korean Journalists' Dependence in News Judgment," in Kim, Kyong Dong (ed.) *Dependency Issues in Korean Development*,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pp. 160-175.
- Dizard, Wilson P. 1982, *The Coming Information Age*, New York, Longman.
- Dordick, Herbert 1984, "Transborder Data Flows: Competition and Regulations," in Gerbner, G. & M. Siefert (eds.), *World Communications*, New York, Longman, pp. 210-216.
- Gerbner, G., Gross, L.P., & W. Melody (eds.) 1973,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ocial Policy*, New York, John Wiley & Sons.
- Gerbner, G. & M. Siefert (eds.) 1984, *World Communications*, New York, Longman.
- Hamelink, Cees 1984, "International Finance and the Information Industry," in Gerbner & Siefert (eds.) *op. cit.*
- Hancock, Allan 1984, *Technology Transfer and Communication*, Paris, UNESCO.
- Ishadi, S.K. 1985, "Approaching the Third Wave Information Revolution," in *The Third Channel*, Seoul, International Broadcasting Society, Vol. 1-2, pp. 191-203.
- ITU, *The Missing Link*, Geneva 1986.
- Masuda, Yoneji 1981, *The Information Society*, Bethesda, Md., World Future Society.
- Matta, Fernando Reyes 1984, "A Social View of Information," in Gerbner & Siefert (eds.) *op. cit.*, pp. 63-68.
- Martelanc, Tomo 1985, "New Media and the Third World," in *The Third Channel*, Seoul, IBS, Vol. 1-2, pp. 178-190.
- Melody, William 1984, "The Radio Spectrum," in Gerbner & Siefert (eds.) *op. cit.*, pp. 229-235.
- Naisbitt, John 1984, *Megatrends*, New York, Warner Books.
- O'Brien, Rita 1984, "The Political Economy of Information," in Gerbner & Siefert (eds.) *op. cit.*, pp. 37-44.
- Pelton J.N. 1981, *Global Talk*, Sijthoff & Noordhoff, Rockville, Md.
- Pipe, R.G. 1984, "Transnational Data Flow," in Gerbner & Siefert (eds.) *op. cit.*, pp. 192-201.
- Pool, Ithiel de Sola 1977,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on Development," in Rahim, Syed & John Middleton (eds.), *Perspectives in Communication Policy and Planning*, Honolulu, East-West Center, pp. 101-126.
- Porat, Marc Uri 1978, "Global Implications of the Information Society," in *Journal of*

- Communication*, Vol. 28-1, pp.71-80.
- Rada, Juan 1981, "The Microelectronic Revolution: Implications for the Third World," in *Development Dialogue*, Vol. 2, pp.42-67.
- Reddi, Usha V. 1985. "Of the Appropriateness of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Third Channel*, Seoul, IBS, Vol. 1, 1-1, pp.75-88.
- Schiller, Dan 1985, "The Emerging Global Grid: Planning for What?" in *Media, Culture and Society*, Beverley Hills, Sage, Vol. 7, pp.105-125.
- Schiller, Herbert I. 1971, *Mass Communications and American Empire*, Boston, Beacon Press.
- Schiller, Herbert I. 1976, *Communication and Cultural Domination*, White Plains, N.Y., Shaspe.
- Schiller, Herbert I. 1981, *Who Knows*, New York, Ablex.
- Schiller, Herbert I. 1985,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World Business System,"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ssociation XIII World Congress, Paris.
- Slack, Jennefer Daryl 1984, "Surveying the Impact of Communication," in Dervin, B. & M. Voigt (eds.),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Beverley Hills, Sage, Vol. V. pp. 73-110.
- Toffler, Alvin 1980, *The Third Wave*, New York, Bantam Books.
- Tehrani, Majid "The Age of Information," *The Third Channel*, Seoul, IBS, Vol. 1-1, pp.13-24.
- UNESCO 1981, *Many Voices, One World*, Paris.
- Williams, Frederick 1983,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revised ed., New York, Merton Books.
- 秋光永 1982, "커뮤니케이션권과 제 3 세계," 성곡논총 제13집, pp.448-474.
- 秋光永 1986, "제 3 세계와 신국제정보질서운동," 김진균의, 제 3 세계와 한국의 사회학, 서울, 돌베개, pp.225-258.
- 한국전기통신공사 1987, 전기통신통계연보, 서울.
- 일본우정성 1987. 통신백서 1986, 동경.